

## 제46회 근로자문화예술제 시상식 개최 직장인들의 숨겨진 예술 재능의 재발견

- 가요·문학·미술·연극 분야에서 총 5,476점 출품되어 뜨거운 경연 진행..
- 근로자가요제 ‘오고은’ 참가자 대통령상, 문학 분야 ‘박수교’ 참가자의 시(詩) ‘미화 옷수선’ 국무총리상 수상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8일 서울 상암동 KBS미디어센터에서 「제46회 근로자문화예술제」 시상식을 개최했다.

근로자문화예술제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근로자 대상 종합 문화예술 행사로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 KBS한국방송과 공동으로 주최한다. 매년 5천 명 이상의 근로자가 참가해 수준 높은 작품을 선보이며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아오고 있다.

올해도 가요, 문학, 미술, 연극 4개 분야에서 총 5,476건의 작품이 출품되면서 높은 참여 열기 속에서 예술제가 진행됐다.

올해 근로자가요제는 근로복지공단 창립 30주년과 가요제 탄생 40주년을 기념해 역대 수상자들이 모여 다시 경연하는 ‘왕중왕전’으로 열렸다. 암 투병 중 음악으로 희망을 전하고 싶다는 참가자, 오랜 세월 가수의 꿈을 응원해 준 부모님께 멋진 무대를 선물하고 싶다는 참가자 등 다양한 삶의 사연을 담은 무대들이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치열한 경연 끝에 ‘오고은’ 참가자가 ‘김건모-서울의 달’을 열창해 ‘제1회 왕중왕’에 올랐으며, 이번 문화예술제의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받았다.

올해 문화예술제의 국무총리상은 문학(시) 「박수교 - ‘미화 옷수선」이 받았다. “자유롭고 능숙한 언어 구사와 그에 걸맞은 단단한 사유의 힘을 갖고 있고, 문장 구성력과 비유가 매우 뛰어나며 시적 표현이 섬세하고 촌촌해 언어가 마치 한 땀 한 땀 수놓아진 정갈하고 깔끔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문학 분야 대상(고용노동부장관상)은 희곡 「진실 - ‘파더 박멸작전’」이 받았다. 올해 출품된 문학 작품들은 형식보다 내용의 울림이 두드러지고 삶을 바라보는 시선의 다양성과 문학적 감수성이 풍부하다는 총평을 받았다.

연극 분야 대상(고용노동부장관상)은 「아해 - ‘웃어라 무덤아’」가 받았다. 수상 극단 ‘아해’는 직장인으로 구성된 동호회임에도 참신한 연출과 전문 배우에 버금가는 연기력, 아마추어의 뜨거운 열정이 특히 돋보이는 공연으로 심사위원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미술 분야 대상(고용노동부장관상)은 사진부문 「이준혁 - ‘기울어진 오후’」가 수상했다. “평범한 일상을 예술적 감각으로 승화시킨 점이 돋보였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사진이라는 매체가 단순히 이미지를 담는 도구를 넘어 근로자의 삶과 생각, 사회의 다양한 단면을 공유하는 소통의 언어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근로자 사진 문화의 성숙과 확장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문학과 미술 분야 수상작은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에 게시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시상식에서 “올해는 근로복지공단이 창립 30주년을 맞은 해이자 「산재근로자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첫해로서 매우 뜻깊은 해에 근로자문화예술제를 함께할 수 있어 감회가 새롭다.”라면서 “공단은 앞으로도 변화와 혁신을 통해 근로자의 삶과 문화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                |     |     |     |                |
|-------|----------------|-----|-----|-----|----------------|
| 담당 부서 | 복지사업국<br>복지계획부 | 책임자 | 부 장 | 김혜경 | (052-704-7301) |
|       |                | 담당자 | 팀 장 | 서정효 | (052-704-7330) |



## 참고 1

## 「근로자 문화예술제」 주요 사업내용

- ① **목적:**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의 장을 마련하여 정서함양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② **연혁:** ('80.11.) 노동문화제(미술분야) → ('81.5.) 문학분야 신설 → ('85. 5.) 음악분야 신설 → ('88.10.) 연극분야 신설 → ('18. 2.) 영화제 도입→ ('22. 2.) 영상제 도입
- ③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91조 제9호(근로자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체육활동 지원)
- ④ **참가자격:**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청일 현재 국내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단, 6개월 이내 퇴직자 포함)
  - 해외 파견 근로자, 외국에 소재한 한국기업 소속의 근로자, 산업재해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 노동자

### ⑤ 제46회 문화예술제 주요 내용

#### ○ 행사 일정

| 세부내역 | 가 요           | 연 극            | 미 술            | 문 학                       |
|------|---------------|----------------|----------------|---------------------------|
| 모집부문 | 독창, 중창, 합창    | 기성극, 창작극, 뮤지컬, | 회화, 서예, 공예, 사진 | 시, 소설(단편소설, 단편동화), 극작, 수필 |
| 접수기간 | 1.20. ~ 2.28. | 4.1. ~ 5.30.   | 5.1. ~ 6.30.   |                           |
| 시상일자 | 4.11.(금)      | 11.8.(토)       |                |                           |

#### ○ 시상내역

(단위: 만원)

| 구 분          | 합 계    | 가 요               | 미 술               | 문 학               | 연 극                |
|--------------|--------|-------------------|-------------------|-------------------|--------------------|
| 대통령상         | 1명     | 1명 700            |                   |                   |                    |
| 국무총리상        | 1명     |                   |                   | 1명 500            |                    |
| 대 상          | 5명(팀)  | 1명 400<br>(고용노동부) | 1명 400<br>(고용노동부) | 1명 400<br>(고용노동부) | 1팀 400<br>(고용노동부)  |
| 금 상          | 13명(팀) | 2명 각200           | 4명 각200           | 4명 각200           | -                  |
| 은 상          | 15명(팀) | 3명 각100           | 4명 100            | 4명 각100           | 2팀 각150            |
| 동 상          | 39명(팀) | 4명(팀) 각50         | 16명 각50           | 16명 각50           | 3팀 각100            |
| 특별상          | 1명(팀)  | 1명(팀) 50          |                   |                   |                    |
| 입 선<br>(개인상) | 46명    | -                 | 19명               | 19명               | 2명<br>- 연기상 2명 각30 |

## 참고 2

## 「근로자 문화예술제」 주요 수상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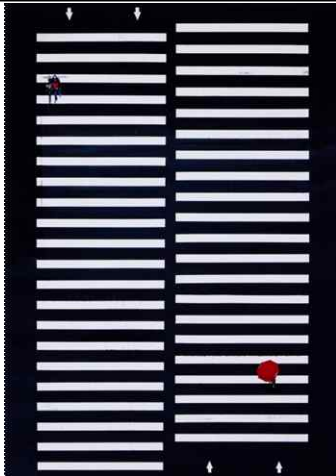
① 사진 노동부장관상 이준혁 「기울어진 오후」



② 회화 금상 이유진 「분수」



③ 사진 금상 채병주 「횡단보도의 사람들」



④ 서예·캘리 금상 이재권 「세미원연꽃」



⑤ 공예 금상 김상복 「꽃밭 위의 나비」



⑥ 회화 은상 조진숙 「새벽」

